

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

“세상이 밝아졌어요” 장흥군, 스마트폰 교육 호응

장흥군노인복지관, KT IT서포터즈 연계 운영

매주 화요일 60세 이상 어르신 20명 대상 진행

장흥군노인복지관이 이달부터 KT IT서포터즈와 연계한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교육은 매주 화요일 장흥군노인복지관에서 60세 이상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준비물은 스마트폰 하나면 된다.

수업은 스마트폰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는 기본적인 사용법부터 사진을 찍고 앱을 받아 사용하는 등 실생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기능 위주다.

프로그램을 수강한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으로 노래도 검색하고 동영상도 보고 스마트폰 기능을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전했다.

스마트폰 강사를 지원해준 KT IT서포터즈는 누구나 자유롭게 IT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따뜻한 스마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운영되는 재능기부형 사회공헌사업이다.

장흥군노인복지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의 사회공헌사업을 연



계해 어르신들의 여가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14회 전라남도시각장애인체육대회 성료

전남 도내 19개 시·군 선수단 730여명 참여

전라남도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회장 장대홍)은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를 동안 전남 도내 19개 시·군 선수단 700여명(선수490명 임원 및 자원봉사자 2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제14회 전라남도시각장애인체육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대회는 전라남도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회장 장대홍),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회장 김영록)가 주최하고 목포시장애인체육회(회장 김종식),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라남도지부(지부장 김영만) 및 목포시지회(지회장 박준복)가 주관했다.

특히 전라남도와 목포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전문체육분야 5개 종목(골볼, 실내조정, 시각

블링, 시각탁구, 쇼다운), 생활체육분야 5개 종목(장기, 피퍼, 한궁, 팔씨름, 줄다리기) 등 총 10개 종목으로 진행되었다.

대회결과 종합우승은 목포지회, 종합준우승 광양지회, 종합3위 순천지회, 종합4위 여수지회, 종합5위는 해남지회가 차지했다.

장대홍 회장은 “이번 체육대회는 역대 가장 많은 시군 선수단이 참여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시각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스포츠생활 즐чин을 도모하고 전문체육인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한편 시각장애인과 가족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체육축제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웃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게 행복”

광양시 중마동 금광반찬 박길오 대표, 매주 목요일 밀반찬 후원

광양시는 중마동 금광아파트 상가에 위치한 금광반찬(대표 박길오)이 매주 목요일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밀반찬’을 후원해 이웃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마동 통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박길오 대표는 살맛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밀반찬을 만들어 중마동주민센터에 후원하고 있으며, 중마동주민센터는 소외계층 5가구를 직접 방문해 밀반찬을 전달하고 말벗이 되어주고 있다.

박길오 대표는 “이웃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게 나를 행복하게 한다”며, “우리 이웃들이 맛있게 드



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이웃 사랑을 계속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곡성군,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안전보건교육

곡성군이 지난 23일 곡성레저문화센터에서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사업담당자 4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생들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알아보고, 생활 속에서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여야 작업장 안전도 일상화될 수 있음을 배울 수 있었다. 특히 참여자가 인지력과 육체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일수록 업무상 사

고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을 감안하며 다양한 실사례를 들어 안전의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 은홍일 차장은 강의를 통해 “안전은 곧 생활이다.”라며 일상 속 작은 일에도 품은한 확인과 세심한 점검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 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자리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광희 기자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임로 340번길 5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음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Together Gwangsan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임로 340번길 5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음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Together Gwangsan